



5월 주제 개인전 준비차 광주 찾은 작가 홍성담씨

“시민 관통하는 계엄군 총탄 그 찰나의 순간들을 담겠다”

5월 광주에서 여는 개인전을 앞두고 민중 미술 1세대인 홍성담 작가가 지난 20일 광주를 찾았다. 홍 작가는 이날 전시가 계획된 광주시 동구 메이홀(May Hall)에서 광주 시민들과 만나 '광주 정신과 예술 운동'을 주제로 2시간30분간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이날 행사는 홍 작가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다. 전시를 앞두고 신작을 그리기 위해 광주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작품에 반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광주를 찾은 그

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작가는 광주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다.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광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광주 공동체 정신은 물론 직장, 학교, 심지어 가족 공동체까지도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창조적 고통과 광주 공동체를 되찾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힘이 필요하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연극과 영화, 뮤지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5월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80년대 예술인들은 거리에서 자신의 작품을 1000원에 팔아 연극, 마당극 예산을 마련했다. 그들에게 그만큼 열정이 있는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작품들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적인 것인가? 80년대 선배들이 했던 연극과 마당극을 재해석한 작품들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광주에 메이홀과 같은 대안공간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나타냈다.

“대안공간은 진실한 의미의 문화를 탄생시키는 곳. 대안공간에는 다양한 삶의 구조를 담아야 한다. 나도 몇 년 뒤에는 그림으로 돈을 사서 광주에 대안공간을 만들고 싶다.”

대안공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버무려면서 새로운 맛과 향기의 문화를 꽃피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박근혜 출산 그림’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웃기는 사람들이다. 검찰도(나를)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부르고 있다. 부른다고 해도 내 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소독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홍 작가는 올해 말에 일본 시민단체의 초대 받아 도쿄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시를 할 예정이다. 5년간 작업했던 일본 야스쿠니 연작이 전시될 예정이지만 일본 갤러리의 반대로 전시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걸으며 주제 ‘M16 다섯개의 총탄’ 확정 “광주 공동체 회복 예술가들의 힘 필요하다”

는 옛 전남 도청, 광주역, 대인시장, 사직공원, 광주공원, 양동시장 등 5월 역사현장을 둘러보고 난 뒤 전시 주제를 ‘M16 다섯 개의 총알’로 정했다.

“오랜만에 광주의 봄바람을 쐬니 좋더라. 5·18의 아픔이 있는 거리를 걸으며 전시 주제를 정했다. 역시 광주에 내려오길 잘한 것 같다. 광주에서 5·18만을 주제로 한 개인전을 처음 연다. 당시 계엄군이 들었던 M16 총에서 총알이 발사돼 시민이 맞을 때까지의 순간을 그릴 것이다. 그 찰나의 과정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계엄군과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공선욱이 이 작품을 보고 칼럼을 써줬으면 한다.”

그는 “광주가 더 이상은 역사적, 정치적 고통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문화인들 사이에서 창조적인 고통을 해야 하고 창조적 고통 속에서 공동체 정신을 되찾

고 강조했다.

“예술가에게 무모한 자유가 없다면 예술가라고 할 수 없다. 생각이 자유롭지 못한 예술가는 더러운 지식인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예술이 시대를 바꿀 수는 없다. 나 같은 화가도 역사에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마중물이나 씨앗은 될 수 있다.”

그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광주는 문화의 도시가 아니다. 모든 삶의 형태는 다양한 문화로 인정받아야 한다.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예술인들도 그런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도 마찬가지다.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이름 짓고 광주를 억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바꾸려는 정부의 발상도 웃긴다. 이름은 형식을 규정한다. 잘못됐다. 그 안에 언어폭력이 내포돼 있다.”

올해도 달립니다 ‘김원중 달거리 공연’

25일 빛고를 시민문화관 첫 공연...25현 가야금 연주자 최상희씨 등 소개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이하 달거리)가 첫발을 댄 지 올해로 딱 10년이다. 공연 첫해였던 2003년과 2004년 모아진 성금 2000만원은 북녘 어린이 빵공장 사업 본부에 전달됐고, 평양 대동강변에 ‘북한영양빵공장’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지금도 ‘육류’라는 이름으로 하루 1만개의 빵이 생산돼 북한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달거리는 이후 5년간의 휴지기를 거쳐고 지난 2010년(매월 넷째주 월요일)부터 매년 열리며 광주의 대표 문화 브랜드가 됐다. 달거리가 2013년 시즌을 함차게 시작한다. 올해 공연도 큰 틀거리는 변함이 없다. 지난 해까지 함께했던 터줏대감 김원중을 비롯해 강윤숙 재즈 트리오(강윤숙·김성광·임민수), 느티나무 밴드(정은주·조성우·박우진·송기정), 보헤미안 소울(이상목·유형민)이 함께하며 ‘영화속 노래 찾기’, ‘뫼지’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달거리의 특징 하나는 지역 화가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무대 배경이다. 매달 선정된 작가는 그 달의 주제에 맞는 그림들을 선보여, 공연장은 갤러리로 변신한다. 올해는 강동권·김영태·류재웅·박선주·임근재·이윤배·정명동·장현우씨가 참여한다.

신인 소개 코너인 ‘졸탁’은 달거리팀이 지역의 후배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6인조 재즈밴드 ‘세븐 마일즈’, 남스트리오 ‘마인스 이어’, 혼스트리오 ‘보이스 홀라’, 첼리스트 박효은, 맘대로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신인이 출연한다.

연료이 쌓인 행사는 인지도나 공감대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비슷한 포맷 안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 기본 틀 안에서 항상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김원중의 달거리 팀 역시 고민해온 부분이다.

올해는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롤로그의 노래 배달’이 신설됐다. 부부 듀엣 프

블로그(최성식·서민정)가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불러주는 프로그램으로 달거리 홈페이지와 프롤로그의 휴대폰(010-7166-2165), 공연장 입구에서 신청곡을 받는다. 또 ‘진시영의 미디어아트’도 새롭게 시작하며 올해는 인터넷 생중계도 구상중이다.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올해 첫 공연의 주제는 ‘눈 녹은 물에 얼굴을 씻다’다. 김원중, 주홍, 강윤숙 재즈밴드, 느티나무밴드가 무대에 서며 ‘졸탁’ 코너에는 25현 가야금 연주자 최상희씨가 출연한다. 무대 미술참여 작가는 화가 문명호씨다.

티켓 가격은 따로 없다.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작은 정성을 보태면 된다. 2003년~2004년, 2010년~2012년, 심시일반 모은 성금은 6319만원에 달한다.

http://www.kimwonjung.com.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



지난해 달거리 공연모습.

클래식은 봄바람을 타고 문화예술협, 26일 호신대 음악회

(사)문화예술협회는 26일 오후 7시 호남신학대 티브라운에서 ‘봄바람’을 주제로 클래식 음악회를 연다.

아그리나 퀸텟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노팅힐’과 ‘여인의 향기’ ‘시스터 액터’, ‘클래식’ ‘로미오와 줄리엣’, ‘맘마미아’ 등 영화 삽입곡과 흥난파의 ‘봄처럼’ 등 아름다운 가곡을 들려준다.

아그리나 퀸텟은 플루트 김윤희, 김희운, 클라리넷 장명화, 첼로 이소연, 피아노 백영미씨로 구성된 그룹이다.

공연 중에는 해설과 영상이 곁들여지며 무료로 커피도 제공한다. 문의 062-384-2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술관 활성화’ 길을 묻다

전남도, 오늘 자연사박물관서 워크숍

전남도가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전남도는 21일 “22일 목포 자연사박물관에서 시설물 관계자 워크숍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목포 경제정의실천연합(사무처장 김중익)에 운영을 의뢰해 도내에 운영 중인 박물관, 미술관, 관광시설물 17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시설물 활성화 방안 조사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또 함평 잠필미술관(관장 김광욱)의 사례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목포 자연사박물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의 운영 사례를 발표한 후 발전적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이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시설물의 진흥조례 제정, 인증 박물관, 미술관 제도 도입, 시설 허가조건 강화 등 관리체계 개선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한 주민참여 등 운영 부분 개선에 대한 시설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도 듣는다.

이기한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주민이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2013년 광동지역시 부활특 연합예세

생명의 빛 메스그리스도

일시 : 2013년 3월 31일 (주일) 새벽 5~6시

장소 : 광주시청 문화광장(상무지구)

주최 :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주관 : 2013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후원 : 광주CBS, 광주CTS, 광주극동방송, 광주교동방송, 미션21, 기독교호남신문, 기독교타임스,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장로교회협의회, 광주초교파장로연합회, 광주기독교연합회